

## 특허청코트라 수출기업 지재산 불편해소 직통 회선(핫라인) 구축

- 수출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12.22) -
- 우수 지식재산 보유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협력 추진 -
- 지재산전문가 파견·배치 확대 등 해외지식재산센터 운영 협력 강화 -

특허청(청장 이인실)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유정열, 이하 ‘코트라’)는 12. 22.(금) 15시 코트라(서울시 서초구)에서 우수 지식재산 보유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고 수출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특허청의 지식재산 창출·보호와 코트라의 수출 지원이라는 양 기관의 강점을 활용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과 해외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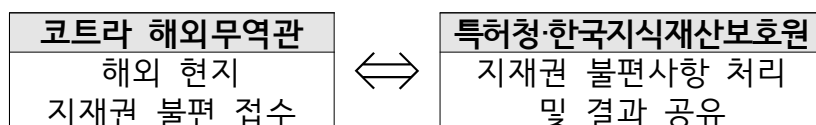
양 기관은 업무협약에 따라 ①우수 지식재산 보유 기업 발굴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②수출 중소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 지식재산 불편사항 해결 ③수출 중소기업 지식재산 보호·분쟁대응 ④해외지식재산센터 운영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①특허청이 지식재산 기반 연구개발(IP-R&D) 전략 지원 등을 통해 우수 지식재산을 확보한 중소기업·중견기업을 코트라에 추천하면, 코트라는 수출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해외 사업화·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 해외투자유치상담회 개최시 희망기업에 투자가 발굴, 1:1 상담 연계, 통역 등 지원

②코트라는 84개국에 있는 129개 해외무역관을 통해 수집된 우리 수출기업의 지재산 불편사항을 특허청에 전달하면,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신속하게 해결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지재산 불편해소 직통 회선(핫라인)도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 지재산 불편해소 직통 회선(핫라인) >



③ 코트라의 수출지원 사업을 통해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특허청에서 지재권 불편 상담·자문, 교육·발표회 및 지재권 분쟁대응 상담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④ 특허청과 코트라는 11개국 17개소의 코트라 해외무역관에 설치된 해외 지식재산센터\*를 내년부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운영하도록 했다. 코트라는 ‘코트라 한지붕(원루프) 체계\*\*’를 통해 해외무역관에 지재권전문가 파견·배치, 사무공간 등을 지원함으로써 해외지식재산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 해외 진출 우리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외 현지에서 지재권 불편사항 상담, 법률자문 등 현지 초동대응 서비스 제공

\*\* 코트라 한지붕(원루프) 체계 : 수출지원기관이 코트라의 해외무역관에 직원을 파견·배치하고, 해외무역관 기반시설·네트워크를 결합한 수출기업 일괄(원스톱) 지원 체계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의 협력이 해외 지재권 보호에서 우수 지재권 보유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까지 확대됐다”면서 “앞으로 우리 기업이 해외진출 과정에서 지재권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정열 코트라 사장은 “지재권은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과정에서 반드시 갖춰야 할 중요한 요소”라면서 “특허청과 함께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지재권 보호를 위해 코트라의 해외 기반시설과 네트워크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진은 행사(15시) 후 배포 예정

담당 부서	특허청 산업재산분쟁대응과	책임자	과 장	한덕원 (042-481-3555)
		담당자	서기관	강성현 (042-481-391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기획조정실	책임자	실 장	이금하 (02-3460-7060)
		담당자	과 장	권오철 (02-3460-7063)

